

#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침해 단속 강화

## 속초해경, 장애인·노숙자 상대 취업빙자 약취 등... 4~5월 두달간 수사전담반 편성

해양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실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고용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월과 5월 두달 동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원 매매와 선원 상대 물품판매 등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은 관련 업소

현황 파악 등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외국 선원과 선원직업소개소 등 취업지에 대한 고용현황 등을 조사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선원으로 유인한 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약취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원을 상대로 숙박료 및

술값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불법 착취하는 행위, 무허가 선원소개업 운영 행위,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도 단속한다.

속초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을 빙자해 영리목적으로의 약취·유인·감금하는 등의 선원 인권 유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고성 해병대전우회가 지난 3일 고성군 5개 읍면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해병대전우회 산불예방 캠페인

고성 해병대전우회(회장 성한수)는 지난 3일 고성군 5개 읍면에서 해병대전우회 및 경동대 해병대 청룡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토성면을 시작으로 현내면까지 차량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5개 읍면 중심가

전단지 배포 활동을 전개했다.

성한수 해병대전우회 회장은 "이번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과 지역민들의 생활안전 의식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크고 작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 “사상전 승리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 육군 22사단 북한전문가 초청 안보강연·좌담회 개최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지난 6일 오전 사단 회의실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 및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정훈장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문가 초청 안보강연 및 좌담회를 개최했다.

안보전문가 강연에서는 한때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 학생운동의 모순을 느끼고 올바른 역사와 지식을 알리기 위해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로 활동 중인 이종철씨가 '중북 세력의 실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8년간 북한군 GP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탈북군인이 참석해 우리 군과 맞닿아 있는 적 GP의 특성과 교육 훈련, 사상교육, 생활상 등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지난 6일 22사단 안보강연 참석자들이 탈북군인과 '북한군의 실상'에 대한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안보강연 및 좌담회에 참석한 22사단 수색대 양재운 대장(중령)은 "평소 장병 정신교육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실제 탈북군인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기자

### 고성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는 지난 6일 고성중·고등학교 등 관내 3개 학교에서 고성교육지원청,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80여명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고성중고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최광호 기자

##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 어획부진·고유가 지속 등 불법유통 발생 우려

속초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31일까지 석유류 공급자 및 면세유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지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판매업자들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면세유 수

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 불법유통 △정유사, 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간 결탁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차량·보일러 등 용도의 상습 불법사용 △ 무허가어선에 불법양도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 이다.

속초해경은 어획부진 및 고유가 지속 등 어업 재산성 악화로 각종 면세유 불법유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국군 기무부대로!